

기고

주택화재 예방  
작은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잦은 한파로 전기난로, 전기장판, 기름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 머물러야 할지 대피해야 할지, 또는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할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소방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 초기 단계에서 경보음을 통해 위험을 알려주고,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대응한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난방용 전열기구 사용 중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매우 크다.

대형 건축물이나 최근에 준공된 건물의 경우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은 소방시설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 화재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과 전국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언론 및 방송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나,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화재 확산을 방지한 사례가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결코 거창한 설비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주변 가족과 이웃, 지인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모든 가정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위 홍왕석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조금이라도 정적인 방향으로

도 수없이 사용되었다. 그만큼 좋은 글이다. 진리다. 그런데 무섭다. 이대로 다 지키기가 어렵기에.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이를 인용하는 필자도 무섭다. 쓰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써가고 있다.

어린아이는 선과 악을 잘 모르잖는가. 두려움도, 피아도, 진리도 잘 모르는 철부지. 요즘 세상은 경계가 없어져 버린 듯하다.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고 저주까지도 뱉어낸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들, 이를 중계하는 매스컴, 세상을 온통 오몰똥으로 만들어버린다. 이에

는 남녀노소도 따로 없다. 마치 경쟁하듯이 있어댄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할 청소년들, 조폭보다도, 망나니보다도 더 지독한 행위들을 하기도 한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피위대는 흡연은 또 어떤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가래침 뱉어가면서 피고 뺏는다. 낭만이 꽃피어야 할 대학 캠퍼스,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직장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차 한 잔도 동료들과 나눠 마시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자신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젓가락도 없이 달려들고, 이런 각박한 모습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만남이 없다. 당연히 대

화가 있을리 만무하다.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아갈 뿐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집안이 이렇듯이니 그들이 속한 사회는 어떻게 될까. 밝고 맑아질 수가 없잖은가. 그러나 눈뜨면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온통 아버지규환의 곡소리뿐이지 않겠는가. 참으로 애제고 통제다.

이를 조금이라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 기능도 망가져 버린 지 오래다. 인간의 마지막 보류라는 종교기관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해 가지는 못하고 있고, 물론 다른 곳보다는 탁류가 덜 흐르는 하겠지만,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더 대접을 받는다. 물질적으로는 물론 영혼까지 황폐해져 버려 무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편안히 쉴 곳은 이미 아니란 말이다. 이를 부정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광란의 세상, 조금이라도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보면 어떨까. 앞서 말한 성서 구절을 조금이라도 곱씹으면서.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설 명절, 가장 위험한 음식은 떡이 아니라 ‘방심’이다

설 명절이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눈다. 정성껏 준비한 떡과 차려 음식은 명절의 상징이지만, 매년 이 시기 반복되는 사고가 있다. 바로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이다.

전남소방 구급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떡과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57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74%를 차지

했다. 기도막힘은 몇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사례는 심정지로 이어진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섭취 환경이다. 급하게 먹는 습관과 틀니·저작 기능 저하, 주변의 무관심이 겹칠 때 사고는 발생한다. 명절 상에는 늘 “많이 드세요”라는 말이 오가지만, 정작 “천천히 드세요”라는 말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기도막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어른신이 떡이나 고기류를 드실 때는 작게 잘라 제공하고, 물이나 국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어른신의 식사를 함께 지켜보는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다. 기도 가 완전히 막혔을 경우에는 병원에 도착하

기 전,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Heimlich법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이다. 명절을 앞두고 한 번쯤 숙지해 두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설은 무사히 지나가야 비로소 명절이다. 정성과 배려는 상 위의 음식 양이 아니라 가족을 살피는 시선에서 완성된다. 이번 설에는 “더 드세요” 대신 “천천히 드세요”라는 말이 더 많이 오가길 바란다.

장흥소방서장 문병윤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음력 12월 26일)

Grid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